

4-18-2010 주간 메시지

성서: 시편 130:1-8

본문: 요한복음 4:1-38

제목: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야를 기다리는 자의 축복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신다.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소상하게 말씀하셨다 (창 18:1-32-19:1).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실 때에 그 자신이 “아브라함이니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현계형)고 말씀하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신 것이다 (요 8:58).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메시야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만나셔야 하시기에 유대를 떠나 갈리리로 가시는 길에 먼 길을 돌아 사마리아로 가서야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주님 외에는 그 어느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마리아의 수굴에 가서서 정오쯤 되었을 때에 그는 아래가 아닌 우물 곁에 앉으시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다. 바로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거기까지 가셨던 것이다. 그것도 성적으로 불결한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인 주님께서 식사도 거르시면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 여인을 찾아가신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가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야가 필요했던 이유는 세상 죄를 제거하실 분(요 1:29)은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야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녀 자신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만족을 얻을까 하였지만 더욱더 목이 마르게 되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바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히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요 19:28)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물둥이를 이고 우물에 물길러 가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즉시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녀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요 4:16)고 뜻밖의 질문을 하셨을 때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고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니다.” (요 4:17)라고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백을 받으시고 자신이 메시야임을 나타내시고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요 6:40)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일 2:16-17). 목마름으로 인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하면 취할수록 갈증을 더하는 바닷물 같은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 여인이 남편을 다섯 번이나 취하면서 정욕을 채워보려고 했던 것과 닮은 것이다. 문제는 그 목마름이 죄때문에 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 한 번쯤은 들었음에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바라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부정한 여인을 찾아 먼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종들을 보내셔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직분을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증거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위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18-21)

단지 죄인임을 시인하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영육간의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배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을 때 그 기쁨은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 평생을 얻어매고 있었던 모든 죄과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을 때 그 여인으로부터 솟아났던 기쁨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즉시 성음으로 달려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죄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요 4:29)

그때 사람들이 즉시 성음에서 나와 주께로 나왔던 것이다.

주님 자신도 장막절인 명절에 예루살렘 한 가운데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요 7:38)

이 생수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요 7:39).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찾아다녔던 제자들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녀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도니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샅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요 4:34-38)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함으로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영원한 추수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 또한 이 일을 먼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다가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날 준비를 하자! 할렘루야!

4-18-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30:1-8

Main scripture: John 4:1-38

Subject: **Blessing for one that is waiting upon the Messiah that is Christ**

Even before Christ was manifest in the flesh, he had appeared as a man in the earth. Abraham happened to meet with him.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e Lord appeared with two angels that was going to judge Sodom; he explained to Abraham all things in details as talking to his friend (Gen. 18:1-19:1). When Lord Jesus testified of himself to the Pharisees, he said, "Before Abraham was, I am." (In present tense). He revealed himself as the eternal God beyond time and space (John 8:58).

In the main passage, Christ the Messiah, God manifest in the flesh had to meet someone; so he needed to go through Samaria leaving Judea, and departing again into Galilee. No one knew the reason why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except Jesus. Jesus was waiting for someone sitting on the well at noon under the sunshine instead of shade when he arrived at the city of Samaria which is called Sychar. He had to go there skipping lunch to see a woman that was even sexually immoral.

Only one reason why Jesus was looking for that woman was because she was waiting upon the Messiah. She must have believed in the Messiah called Christ that will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29); and she was asking Jesus for the living water knowing the lust of flesh cannot satisfy her being thirsty continually. The living water was the eternal life given through the Holy Spirit that is the only one that can solve the thirst. Lord Jesus cried out on the cross saying, **"I thirst."** (John 19:28) to deliver the sinners from thirst.

The woman was exhausted with drawing water in the noon time under the sunshine avoiding the eyes of the neighbors. Upon hearing from Jesus saying, **"whosoever drinketh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again;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b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John 4:14), she said unto him right away, Sir, give me this water. But she didn't understand thirst that was the spiritual thirst within her. Jesus asked her a strange question, saying, **"Go, call thy husband, and come hither."** (John 4:16) She replied to Jesus, **"I have no husband."** (John 4:17) finally understanding herself a sinner. Hearing her confession of sin, Jesus revealed himself Christ, the Messiah, and gave her the everlasting life. Before Christ died on the cross, everyone that sees the Son, and believes on him, may have everlasting life (John 6:40).

Through the woman in Samaria, we can see the worldly people that are pursuing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1John 2:16-17). They are following the lust of the world that gives more thirst as the sea waters as she was trying to fill the lust of the flesh changing the husbands five times. The problem is that no one knows the

thirst coming from sin. This is the deception of the Devil that is the prince of the world. This is because people reject Christ even though they have heard of the gospel of Christ at least once.

As Christ made long journey to meet a sexually immoral woman that was waiting upon him, the Holy Ghost are willing to send his servants to them that are seeking Christ to give them everlasting life through the remission of sins. Whosoever receives the everlasting life are the ambassadors for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¹⁸And all things are of God, who hath reconciled us to himself by Jesus Christ, and hath given to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¹⁹To wit,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unto himself, not imputing their trespasses unto them; and hath committed un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²⁰Now then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did beseech you by us: we pray you in Christ's stead, be ye reconciled to God. ²¹For he hath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Cor. 5:18-21)

Only confessing sins to receive Christ is the way to be free from thirst to have the joy as the spring waters in the desert when the living water is flowing out of the belly. When all the iniquities disappeared all together, the joy flowing from within her made her run into the city to preach the gospel unto all her neighbors. She preached very clearly and simple:

"Come, see a man, which told me all things that ever I did: is not this the Christ?" (John 4:29)

Then they went out of the city, and came unto Jesus.

Lord Jesus also cried out in the last day, that great day of the feast:

"He that believeth on me, as the scripture hath said, 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ohn 7:38)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e living water is the Spirit, which they that believe on Christ.

Lord Jesus is speaking unto the carnal Christians as the disciples that were looking for food once again:

"³⁴Jesus saith unto them,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³⁵Say not ye, There are yet four months, and then cometh harvest? behold, I say unto you, Lift up your eyes, and look on the fields; for they are white already to harvest. ³⁶And he that reapeth receiveth wages, and gathereth fruit unto life eternal: that both he that soweth and he that reapeth may rejoice together. ³⁷And herein is that saying true, One soweth, and another reapeth. ³⁸I sent you to reap that whereon ye bestowed no labour: other men laboured, and ye are entered into their labours. " (John 4:34-38)

Lord Jesus has given a privilege unto them that received the eternal life to testify of Christ to gather the fruit unto life eternal. All things shall be added unto them tha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Let us prepare to be rejoicing in the day of Christ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to testify Christ! Hallelujah!